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6. 30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 6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1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2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부산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 선정 공고
- 2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 3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확보
- 2 파나마운하 가뭄으로 병목현상 심화 및 인플레이션 증가 경고
- 3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가능성 언급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23년 4월 컨테이너 정시성 전월 대비 1.7%p 증가
- 2 울촌산업단지, 포스코 수산화리튬공장 착공
- 3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 선정 공고¹⁾

-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부지 1단계 일원에 건립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임대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함
- 해당 센터는 정부의 부산항 물류 스마트화 및 중소 화주물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890억 원 중 30%를 보조받으며, '24년에 건립 예정임
- 총 71,000㎡ 부지로, 인천항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항만 배후단지에 도입되는 스마트 물류 시설임
- 5월 26일부터 60일 간의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운영사의 임대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함
- 본 물류센터 운영공고는 지난 '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재공고함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초기 3년 건물 임대료 할인과 당초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조건부 최대 15년 임대 가능으로 변경됨
- BPA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우수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운영사로 선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 친환경 하역장비 도입 지원²⁾

- 부산해수청과 BPA는 '23년 친환경 하역장비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함
- 구체적인 사업은 '부산항 야드트랙터(Y/T) LNG 연료 전환 사업'과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로는 부산항터미널(주)를 선정함
- 'Y/T LNG 연료 전환 사업'은 기존 노후 경유 Y/T 엔진을 LNG 연료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신차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을 100% 저감할 수 있음
- 'T/C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통해서도 초미세먼지 배출의 약 80% 이상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산항은 '22년까지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Y/T의 약 84%(582대)와 T/C의 약 96%(385대)를 친환경 하역장비로 전환했음
- 올해는 36대의 Y/T를 LNG 연료로 전환하고 6대의 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각각 50%, 90%를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임
- 부산해수청과 BPA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항을 클린항만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밝힘
- BPA는 2025년까지 부산항 주요 하역장비인 Y/T와 T/C를 100% 친환경 하역장비로 전환할 계획임

1) 부산항만공사(2023.05.2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0003>(2023.06.15. 검색)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23.05.22.),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125(2023.06.15.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남중국 신규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 개설³⁾⁴⁾

-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인천항~남중국을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TIS2 서비스가 개시됨
- TIS2 노선은 천경해운과 상하이인천국제페리가 공동으로 운항하며, 인천항~평택·당진항-난통항~타이창항~인천항을 기항하는 주 1항차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임
- IPA는 난통 지역 내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모듈 등 다양한 부문의 신규 화주 23개사를 발굴하였으며 난통 통하이(通海, Tonghai) 항만공사로부터 접안 및 하역 스케줄 우선권을 확보함
- 신규 서비스는 인천항과 난통 지역을 잇는 최초의 컨테이너 항로로 기존 TIS(Taicang Incheon Service) 항로와 교차 운항을 통해 연간 약 2만 TE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TIS2 노선은 '23년도 인천항에 개설된 3번째 컨테이너 항로로, 인천항은 TIS2 포함 총 69개의 컨테이너 정기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② 인천항 국제여객 재개 대응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⁵⁾

- » '23년도 상반기 크루즈 입항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제여객 유치 준비를 위해 '인천항 국제여객 재개 대응 추진협의체' 5차 회의가 지난 6월 14일에 개최됨
- IPA에 따르면,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크루즈선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지에서 온 승객 8,832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입항함
- 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인천본부 세관, 검역소 등 유관기관들은 '23년 예정되어 있는 두 차례의 크루즈 입항 지원과 '24년도 모항항차에 대비하기 위해 크루즈터미널 모항 대비 혼잡도 개선, 여객동선 최소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6.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4668&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3.6.20. 검색)

4)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6.05.),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59&pageId=K006003001>(2023.06.16.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6.1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476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3.6.20.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5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

-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물동량 창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재개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지난 '19년 7월 해양수산부와 YGPA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후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함
-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3년 4월과 5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함
- 본 사업은 '30년까지 총 사업비 6,412억 원을 투입, 332만 m²의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총 3단계(1단계: '27.1월, 2단계: '29.5월, 3단계: '30.12월)에 걸쳐 준공될 계획임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6.0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456&category=\(2023.06.09.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456&category=(2023.06.09.검색))

»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4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80만 톤의 물동량 창출 효과, 1만 4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YGPA는 7월 중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본격 공사를 착수할 예정임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2022년도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 우수 선사 선정⁷⁾

» UPA는 '2022년도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 우수 선사로 현대글로벌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선사대리점으로 그레이트해운과 협성산운을 선정함

- VSR은 항내에서 저속으로 운항한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로 선박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70% 이상 저감 할 수 있음
- VSR 참여 확대를 위해 UPA는 '선사 인센티브 제공',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시범운영' 등의 제도 개선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총 2,454척의 선박이 울산항 VSR에 참여함

② 울산항, 올해 컨테이너 신규항로 3개 개설로 총 37개 서비스 운영⁸⁾

» 올해 울산항에 말레이시아 페낭항, 중국 닝보항, 베트남 하이퐁항 컨테이너 항로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동남아-중국-일본 등 인트라아시아 내 37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됨

- 신규 유치 항로는 페낭항이 완하이라인즈의 KSS Service, 닝보항은 흥아라인의 BNX Service, 하이퐁항은 에버그린코리아의 KTH Service임
- 울산항에는 2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37개 항로를 개설 운영 중인데,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은 동남아 9개, 중국 7개, 일본 9개로 총 25개 항로,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JUCT)은 동남아 4개, 중국 6개, 일본 2개 등 총 12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음
- 15일 오전, 울산항과 베트남 하이퐁항을 신규항로에 투입되는 에버그린코리아(Evergreen Shipping Agency(Korea))의 1,820TEU급 선박 'Ever Chaste'호가 처음 입항했으며, 선박 3척을 투입해 주 1회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에 기항할 예정임
- 신규 개설 항로의 기항지는 하카타-울산-부산-광양-청다오-타이페이-가오슝-하이퐁이며, 이번 신규항로 유치로 울산항에서는 연간 약 2만 4,000TE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7) 울산매일(2023.06.08.),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694>(2023.06.16. 검색)

8) 울산신문(2023.06.15.),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573>(2023.06.16.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당진항,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조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⁹⁾

» 당진시는 지난달 31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도 및 당진탱크터미널과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탱크터미널은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단 19만 3,779㎡ 부지(당진항 고대부두 10번)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이행을 위한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27년까지 구축하게 됨
- 터미널에는 27만㎥ 용량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2기, 10만DWT(재화중량톤수)급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1선석이 조성될 예정임
- 이를 통해 당진 LNG 생산기지, 송산 수소(암모니아)부두를 연결하는 신에너지 벨류체인이 구축돼 평택·당진항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도 기대됨
- 특히 이번 평택·당진항 액화천연가스 저장 공급시설 구축을 통해 당진시에는 1조 2,27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268억 원의 부가가치,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9) 당진시 보도자료(2023.06.01.),
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_0000000000014/selectBoardArticle.do?nttId=1103160&kind=&mno=sitemap_12&pageIndex=5&searchCnd=0&searchWrd=(2023.06.16.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울릉 항로 새 여객선 6월 말 취항 예정¹⁰⁾

- ▶ 6월 말 포항~울릉 항로에 취항할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호주 조선소에서 출발해 9일 오전 포항항에 도착함
-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총톤수 3,158톤, 길이 76.7m, 폭 20.6m로 여객정원 970명과 일반화물 25톤을 싣고 최대 시속 83.3km(45노트)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됨
- 이 속도는 포항~울릉 항로를 3시간 이내에 운항할 수 있는 속도이며, 이는 기존 포항 여객선터미널에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보다 빠른 수준임
- 해당 선박은 세관 검사와 검역을 거쳤고 선급검사와 항만시설 확보 등 본격적인 취항 준비에 들어갔으며, 운항 준비를 마치면 29일 취항식 후 30일부터 운항할 계획임

10) 연합뉴스(2023.06.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044000053\(2023.06.18.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044000053(2023.06.18.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¹¹⁾

- ▶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건의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례에 반영됨
- 동해시는 유관기관과 항만 관련 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짐
- 용역결과에 따르면 동해항의 항만구역·배후물류단지구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1,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생산유발효과 1,591억 원, 수입유발효과 13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2억 원, 취업유발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동해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항만개발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도가 북방경제권의 물류통상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현재 전국에는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및 포항항 등 국가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음

11) 강원도민일보(2023.06.01.),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6375>(2023.06.05. 검색)



8) 목포항

① 완도, 신조 국고여객선 '섬사랑5호' 6월 20일부터 운항 개시¹²⁾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새로 건조된 섬사랑5호가 기존 여객선을 대신해 6월 20일부터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힘
- 섬사랑5호(위탁운영 선사: (주)해광운수)는 완도항에서 덕우도까지 편도 36km를 일 2회 왕복 운항하며 운항 중간에 모항도, 생일도, 황제도를 기항할 예정임
 - 신조 '섬사랑5호'는 목포 소재 문창조선소에서 건조된 183톤급 차도선으로 여객정원은 96명, 평속 13.5노트, 적재 능력은 중형승용차 기준 15대로 기존 여객선에 비해 커졌으며 적재 능력과 운항 속력도 향상되었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섬사랑5호 정식 투입 전 13일(화) 11시 완도항에서 도서 주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겸한 여객선 시설 개방 행사를 가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섬사랑5호 취항을 통해 해상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완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수송도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6.13.),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98739\(2023.06.16.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98739(2023.06.16.검색))



9) 대산항

① 서산시, 대산항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¹³⁾

- » 서산시는 6월 1일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기항지를 거쳐 부산항에 입항하는 6~7월 크루즈상품을 개발해 내년 5~10월 코스타 세레나호(11만 4천 톤급)를 투입하여 운항할 계획임
- 시는 롯데관광개발이 협약대로 운항하면 '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모항 크루즈선 유치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준모항, 기항 등 인바운드 크루즈선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

② 서산시, 대산항 장래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 및 활성화 간담회 개최¹⁴⁾

- » 6월 15일, 서산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주최로 '서산 대산항 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항만기본계획 수립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항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용역은 대산항의 운영현황, 물동량, 배후부지 활용, 부두 개발계획 등의 다양한 여건을 검토하여 대산항 미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됨
- 간담회에는 용역사인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한화토탈에너지스, 고려해운, 화주, 선사, 포워더, 하역사, 예선, 도선 등 관련 업계 및 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함
- 시는 이번 용역을 현재 시행 중인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연구'와 연계해 대산항 미래 계획 수립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13) 연합뉴스(2023.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1611000637input=1195m>(2023.06.16. 검색)

14) 서산시 보도자료 (2023.06.15.),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95632&searchCtgr=&searchCnd=SJ&searchKwd=%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3.06.16. 검색\)](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95632&searchCtgr=&searchCnd=SJ&searchKwd=%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3.06.16. 검색))

10) 군산항

① 7월 중순부터 부산항~베트남 하이퐁항~중국 샤먼항을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 개설 예정¹⁵⁾

» 군산시에 따르면 인천항~부산항~베트남 하이퐁~중국 찬조우항~샤먼항을 잇는 노선을 서비스하던 천경해운(주)이 7월 중순부터 군산항의 기항을 확정함

- 군산항을 기항하는 신규 컨테이너 노선에 1천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되며 주 1회 군산항을 기항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찬조우 항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수출입 항만으로 중국 내륙 화물의 집결지이며 하이퐁항은 베트남 북부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 이에 향후 매월 1천여TEU의 신규 물량 창출이 예상되며 군산항 6부두와 군산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6부두 3, 4번 선석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군산컨테이너 터미널 (GCT)이 운영중에 있음, GCT는 '04년 전라북도, 군산시, CJ 대한통운, 세방, 선광을 주주로 출범하였음

15) 천북도민일보(2023.6.1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043>, (2023.6.20 검색)

11) 마산항

① 삼표시멘트 하역 저장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승인 검토¹⁶⁾

» 마산항은 시멘트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 증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저장시설 설치 공사의 승인을 검토 중임

- 공사 시행자는 (주)삼표시멘트로 건축물 3개 동 및 사일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176억 4,700만 원을 투입하고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2023.06.01.),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5&bbsidx=98566>(2023.06.05.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확보¹⁷⁾

- » 러시아 극동 최대 항만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이 6월 1일부터 중국 동북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중국 내륙화물 중계항으로 사용되면서 운송 시간 및 비용 절감 기대
- 내륙화물 중계항으로 지정되면 자국의 지역 간 교역에 활용되는 항만으로 외국의 항만이라 할지라도 관세와 수출입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중국의 동북 내륙 도시인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은 쌀, 옥수수, 콩 등을 중국 전역에 공급하는 주요 곡물 생산 기지임
- 기존에 해당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약 1,000km떨어진 랴오닝성 인근의 잉커우항이나 다롄항까지 이동이 필요했음
-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게 되면 동북 지역 상품을 훈춘지역으로 이동 후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200km의 육상 운송이 가능해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저장성의 두 항만인 저우산 용저우 컨테이너 터미널과 자싱의 자푸항을 자국 내 무역 화물의 운송 입국항으로 추가 지정하며,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한 중국 동북 화물을 처리할 예정임
- » 다만,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화물 처리 효율성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이미 지난 '07년부터 중국 내륙 화물 중계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당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고, 무역 활동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다만,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사용 허가는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짐

17) SCMP(2023.05.19.),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21170/chinas-use-russian-port-ship-goods-domestically-symbolic-closer-ties-hurdles-remain?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campaign=3221170\(2023.06.07 검색\)](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21170/chinas-use-russian-port-ship-goods-domestically-symbolic-closer-ties-hurdles-remain?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campaign=3221170(2023.06.07 검색))

- » 이러한 중국의 러시아 항만 사용권 확보 등으로 중·러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등 국내의 경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 관계 등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블라디보스토크항 인근 중국 도시



자료 : Think China, <https://www.thinkchina.sg/russia-opening-vladivostok-port-china-after-163-years>(2023.06.07 검색)

❷ 광저우항, 난사 구역에 2억 8,400만 달러 투자¹⁸⁾

- » 광저우항은 크게 난사, 신사, 황푸 항만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 난사 항만 구역에 해운·항만 복합 단지를 개발하는데 약 2억 8,4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해당 단지는 룡쉐섬에 위치한 난사 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북서쪽에 위치할 예정이며, 총 76,000 m²의 면적으로 공사기간은 총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 해당 단지에는 난사 지역으로 진출한 해운물류업체의 사무실과 주거지역의 공간이 포함될 예정으로 광저우항의 항만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 » 또한, 해당 단지의 개발은 'Greater Bay Area'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여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임
 - 'Greater Bay Area'는 중국의 선전,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정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국 프로젝트임
- » 한편, 광저우항의 '23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61만 TEU를 기록하는 등 물동량 증가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항만 개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음

18) TAPA(202.06.03), <https://tapa-apac.org/guangzhou-port-to-invest-284m-in-nansha/>(2023.06.05.검색)

2) 아시아

① 2023년도 포트클랑항 컨테이너 물동량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¹⁹⁾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항의 '22년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1,322만 TEU를 기록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연간 1,320만~1,370만 TEU 범위에서 안정적인 물동량을 유지했던 포트클랑항의 '23년도 물동량은 약 2%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포트클랑항 항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포트클랑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3~4% 증가하였으며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환적 물동량의 감소를 상쇄함
- 포트클랑항 물동량의 약 70%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 대중국 교역물동량의 회복세가 더딴

② 2M, 일본의 수출 감소로 '도쿄-美서안' 서비스 중단²⁰⁾

»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은 일본의 화물량 감소로 극동-美 서부를 운항하는 TP8 서비스 노선에서 도쿄항을 제외함

-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등 일본의 주요 항만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기준 약 2만 2천여 척의 컨테이너선이 기항하였으나, '20년 약 2만 척, '21년 약 1만 8천 척 등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2년 또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더욱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의 제조업 위축으로 화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2M은 TP8 노선에서 도쿄항을 제외하고 칭다오, 상하이, 닝보, 부산,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에 기항함
- 도쿄항의 기항지 제외로 일본의 화주들은 상품을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중국이나 우리나라 환적에 의존해야 함
- 이에 따라 일본 화주들은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3~4일이 더 소요되고, TEU당 200~300달러의 운임 추가 지불이 불가피함

19) Seatrade-Maritime (2023.06.02.),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port-klang-sees-slower-expected-rebound-china-container-volumes> (2023.06.20 검색)

20) Fresh Plaza(2023.05.30.), <https://www.freshplaza.com/asia/article/9533505/2m-cuts-tokyo-from-uswc-service-as-japanese-exports-fade/> (2023.06.01. 검색)



③ 인도, 사이클론 ‘비파르조이’ 상륙으로 주요 항만 폐쇄²¹⁾²²⁾

» 초대형 사이클론 ‘비파르조이’ 상륙으로 인도 서부 주요 항만이 폐쇄 후 재개장함

- 지난 6월 15일 아라비아해에서 저기압성 폭풍으로 발전한 초대형 사이클론 ‘비파르조이(Biparjoy)’가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상륙함
- ‘비파르조이’는 평균 풍속이 시속 80~90 마일로, '21년 인도 서부와 파키스탄을 강타한 사이클론 이후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로 분류됨
- 인도는 사이클론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도 최대 항만인 문드라항과 칸들라항 등 주요 항만이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폐쇄하였음
- 구자라트 주정부의 재난 대비로 인명피해는 비교적 적었으나, 항만 폐쇄로 인한 화물 적체, 선박 결항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및 혼잡 등 파급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1) Port Technology(2023.06.1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yclone-biparjoy-stifles-indias-major-ports/> (2023.06.15. 검색)

22) Fresh Plaza(2023.06.20.), <https://www.freshplaza.com/asia/article/9539520/indian-west-coast-ports-reopen-after-cyclone-induced-shutdown/> (2023.06.22. 검색)



3) 미주

① 파나마운하 가뭄으로 병목현상 심화 및 인플레이션 증가 경고²³⁾

» 파나마운하의 수위 조절을 위해 담수를 공급하는 가툰호(Gatun Lake)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하 통과 선박에 대한 추가 요금ی 증가하고 중량 제한이 엄격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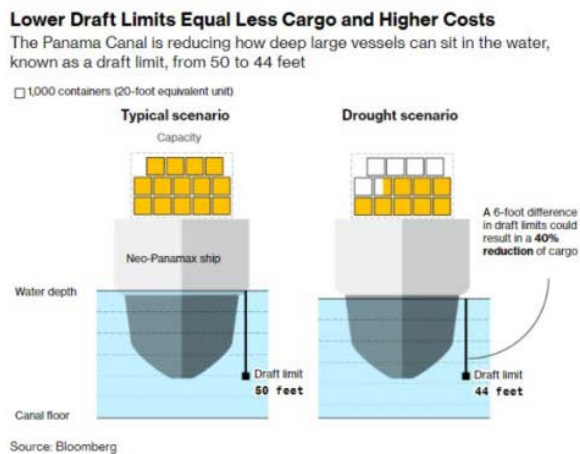
- 파나마 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 PCA 혹은 Autoridad del Canal de Panamá, ACP)은 파나마운하의 올해 5월이 1950년 이후 가장 건조하여 수위가 낮아졌으며, 기존 최저를 기록한 '16년 5월의 78.3피트를 밑돌 것으로 예상함
- ACP는 서태평양에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수위가 계속 낮아질 경우 일일 통과 선박 수를 36척에서 28~32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함
- ACP는 흘수 제한을 기존 50피트에서 44.5피트로 줄였으며 6월 13일에 다시 44피트로 강화함

» ACP의 가뭄 영향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해운업체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흘수 제한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물류 전문가들은 운하를 통한 운송료 상승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체 경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함
- 무역플랫폼 업체 Flexport Inc. 관계자는 파나마운하 가뭄에 따른 조치가 소비자 및 산업재 가격 증가와 운송화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가는 최근 가뭄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언급함

23) Port Technology(2023.06.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drought-threatens-us-inflation-warn-economists/>(2023.06.15. 검색)

파나마 흘수제한에 따른 화물량 제한 변화



자료 : Bloomberg(원출처), Port Technology(2023.06.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drought-threatens-us-inflation-warn-economists/>(2023.06.15. 검색)

② 미주 서안 항만, 노사갈등 지속²⁴⁾²⁵⁾²⁶⁾²⁷⁾

»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ILWU)은 서안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파업을 시작함

- 6월 2일 서안의 LA항, 롱비치항을 비롯하여 오클랜드항, 터코마항, 와이니미항 등에서도 노조 파업이 동시에 발생했으며 5일 이상 지속됨
- 5일 폐쇄 조치를 내린 롱비치항 TTI 터미널은 다음날까지 폐쇄가 이어졌으며, 태평양해사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 PMA)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항만 터미널에 인력 파견을 거부하거나 운영을 지연하고 근거 없는 건강·안전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함
- 8일 LA항만당국은 선박 입항 지연은 해결됐으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화물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전했으며, 미국소매업협회는 물류 혼란을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사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함
- ILWU는 미 서안 29개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2만 2,0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PMA는 서안 항만의 터미널운영사와 터미널 이용하는 선사 등 70개 기업을 대표함
- 기존 단체 협약은 지난해 7월 1일 만료됐으며, 노사는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22년 5월 20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함

» 노사 갈등에 따른 혼란으로 미 서안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 지연과 항만의 컨테이너 백로그가 급증하고 있음

- 서안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 대부분의 기항 혹은 출항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만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컨테이너선의 일정이 하루나 이틀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 6월 둘째 주에는 전 주 발생했던 항만 폐쇄 영향으로 오클랜드 항만의 항계 밖에서 대기하는 평균 컨테이너 수가 25,266개에서 35,153개로 증가했으며, LA항과 롱비치 항에서 대기하는 평균 컨테이너는 21,297개에서 51,228개로 증가함
- 미 서안에서 정체된 86,381개의 컨테이너의 총 가치는 약 5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 서안 항만의 작업 중단은 미국 경제에 매일 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또한, 대통령에게 협상을 촉진하고 PMA와 ILWU 간의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중재자'를 임명할 것을 요청함

24) Port Technology(2023.06.0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hipping-companies-feel-impact-of-us-west-coast-strikes/>(2023.06.16. 검색)

25) 코리아워킹가제트(2023.06.09),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8332(2023.06.15. 검색)

26) Port Technology(2023.06.1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us-west-coast-ports-face-5-billion-worth-of-delays/>(2023.06.16. 검색)

27) Port Technology(2023.06.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anada-west-coast-port-labourers-call-to-strike-in-unanimous-vote/>(2023.06.16. 검색)

- » 이번 파업은 노조가 제안한 임금 인상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으며, 지난 2월 발표한 공동 성명과 5월 발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짐
- 지난 2월 23일 노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5월에도 큰 쟁점 중 하나였던 항만자동화 부분에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음
 - ILWU는 선사와 항만 터미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높은 수익을 냈다는 점을 들어 계약 기간 6년 동안 매년 시급을 7.5달러씩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계약 기간으로 환산한 임금 인상률은 두 배(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ILWU는 노조원의 희생으로 팬데믹 기간 항만 운영사들이 5,100억 달러(약 650조 원)를 웃도는 이익을 냈다고 언급하며 높은 임금 인상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으나, 사용자 측은 과거 20년간의 임금 인상폭이 시급 0.5~1.5달러였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음
- » (캐나다) 서안항만 노동조합인 캐나다 ILWU는 파업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며 거의 만장일치로 파업에 찬성함
-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해사협회(BCMEA)는 49개의 회원을 대표하며, 캐나다 ILWU는 BCMEA의 49개 회원사에서 운영하는 캐나다 서부 해안 터미널에 고용된 7,000명 이상의 항만 노동자를 대표함
 - 캐나다 ILWU는 8~9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거의 만장일치(99.24%)로 파업에 찬성하면서 서안 항만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양측은 6월 21일 이전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파업을 하려면 72시간의 통지 기간을 제출해야함
 - 캐나다 서안에서 파업이 임박하면서 주요 항만인 밴쿠버항과 프린스 루퍼트항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밴쿠버 항만당국은 밴쿠버항 통과 화물의 약 85~90%가 캐나다 화물이며, 프린스루퍼트항은 수입 컨테이너의 약 2/3가 철도를 통해 미국으로 수송되고 있어 이미 파업으로 어려워진 미국 서안 항만의 상황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특히, 파나마 운하가 가뭄으로 흘수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동부 해안으로 향하는 대체 항로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임

4) 유럽

① 로테르담항, 올해 말 CER(Container Exchange Route) 가동 예정²⁸⁾

» 로테르담항은 올해 말 네덜란드 마스블락테에서 터미널과 터미널, 터미널과 창고 간 컨테이너 이동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CER을 첫 가동할 예정임

- CER은 마스블락테의 터미널, 창고, 유통 센터, 세관 터미널의 대부분을 연결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된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운송 경로임
- 이에 따라 운송 중 컨테이너에 화물이 추가·교체·제거될 수 없으므로 항만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밀매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CER은 관리 측면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테르담항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②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가능성 언급²⁹⁾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농산물 수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흑해 곡물 거래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곡물 거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유엔과 튀르키예는 지난 해 7월 러-우 전쟁과 흑해 항구 봉쇄로 악화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흑해 곡물 협정을 중개한 바 있음
- 이 협정은 현재까지 세 번 연장되며 약 3,200만 톤의 곡물과 식료품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었고, 올해 7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임
- 러시아는 러시아 식품 및 비료의 수출이 서방 제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류, 보험, 지불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아프리카는 '18~20년 기준 전체 밀 수입량의 32%를 러시아, 12%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함

28) Port of Rotterdam(2023.05.30.),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customs-excited-about-rotterdam-container-exchange-route>(2023.06.20. 검색)

29) Reuters(2023.06.15.), <https://www.reuters.com/world/kremlin-urges-faster-action-let-foreign-vessels-use-northern-sea-route-2023-06-15/>(2023.06.20. 검색)



③ 머스크, 최초 메탄올 컨테이너선 항해를 위한 연료 공급 체제 확보³⁰⁾

- » 머스크는 네덜란드 에너지 회사인 OCI글로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올해 여름 울산항부터 코펜하겐항까지 항해하는 2,100TEU급 컨테이너선에 그린 메탄올을 공급할 계획임
- 메탄올은 기존 선박유에 비해 SOx,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 OCI글로벌은 매립지 유기 폐기물을 분해하면서 포집한 메탄올 가스를 이용해 선박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함
- 머스크는 지난해 발표한 '30년까지 해상 화물의 25%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운송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조선해양에 17,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하는 등 총 19척의 메탄올 선박을 주문한 바 있음
- 올해 여름 울산항을 출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시작으로 '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는 대형 컨테이너선에도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예정임

30) Reuters(2023.06.13.),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maersk-secures-fuel-first-methanol-container-ship-journey-2023-06-12/> (2023.06.20.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멜버른항, 203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 약속³¹⁾

- » 멜버른항은 항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밝힘
- 멜버른 항만 당국의 회사 차량 및 해양 조사선을 전기 또는 무공해 연료 기술로 전환하고자 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멜버른항은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메탄올 버킹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음
- 머스크와 CMA CGM은 태즈메니아에 위치한 ABEL 에너지와 빅토리아 포틀랜드의 HAMR 에너지 생산된 그린 메탄올을 멜버른항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함

② 호주 멜버른항, 2024년까지 터미널 확장을 위해 2억 3천만 호주달러 투입³²⁾

- »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ICTS)는 호주 멜버른항의 빅토리아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이 대형 선박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프로젝트는 약 2억 3천만 호주달러(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터미널 확장 공사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336m 규모의 선박 2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됨
-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안벽 크레인이 5대에서 차세대 크레인 3대를 추가하여 8대로 증가하고, 자동 장치 크레인(ACS) 10대가 추가되며 장치장 처리능력이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31) Offshore energy(2023.06.14.), <https://www.offshore-energy.biz/port-of-melbourne-commits-to-2030-net-zero-target/> (2023.06.14. 검색)

32) Port Technology(2023.06.12.),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melbourne-aud235-million-expansion-on-track-for-2024/> (2023.06.12. 검색)

6) 아프리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 새로운 예인선 부두 건설을 통한 효율성 증대 도모³³⁾

» 더반항의 트랜스넷 국립항만청(TNPA)는 새로운 예인선 부두를 건설하여 추가적인 예인선 투입이 필요한 대형 선박의 처리시간을 줄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155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콰줄루-나탈 항만 중장기 개발 계획의 일부로 더반항을 국제 컨테이너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
- 이 프로젝트로 흘수 제한과 접안 공간 제약이 완화되어 더반항은 충분한 접안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3) Engineering news(2023.06.07),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new-tug-jetty-at-durban-port-to-increase-efficiencies-2023-06-07\(2023.06.10. 검색\)](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new-tug-jetty-at-durban-port-to-increase-efficiencies-2023-06-07(2023.06.10.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3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0.4% 감소³⁴⁾

» '23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한 105.9를 기록함

-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 전 세계 물동량이 반등하면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도 개선됨
- 중국의 경우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경제활동 재개로 전월 대비 11.3%,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108.4를 기록하면서 세계 물동량 반등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중국의 칭다오항의 경우 3월 컨테이너 처리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31% 증가함
- 반면, 북미와 유럽의 경우 시장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유일하게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북미의 경우 '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북미지역의 경우 수요 부진 및 항만 노조 재협상 등에 따른 지속적인 우려가 결합되면서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LA항과 LB항 모두 3월 처리실적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함

34) Drewry,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3.06.15. 검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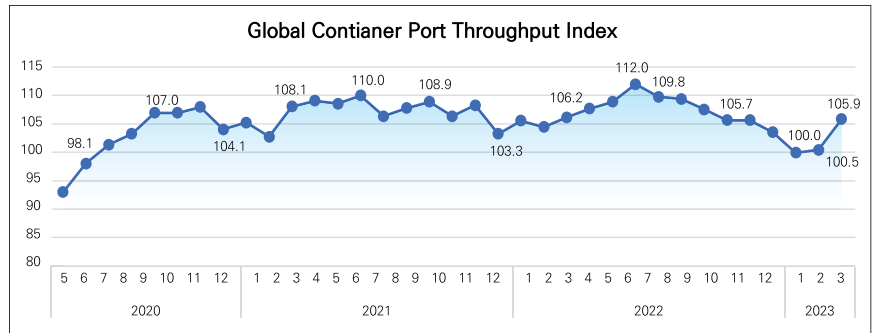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지역	2022년	2023년		전월대비	전년 동월 대비
	3월	2월	3월		
Global	106.3	100.5	105.9	5.4	-0.4
Greater China	102.7	97.4	108.4	11.3	5.6
Asia(excl. China)	104.2	100.9	110.1	9.1	5.7
Middle East&South Asia	108.7	113.3	115.6	2.0	6.3
Eroupe	105.8	99.9	96.5	-3.4	-8.8
North America	118.1	94.6	89.9	-5.0	-23.9
Latine America	118.9	114.2	116.6	2.1	-1.9
Africa	104.1	104.3	108.3	3.8	4.0
Oceania	101.1	93.5	101.1	8.1	0.0

주: 2019년 1월=100

자료: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처리지수



자료 :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② '23년 4월 컨테이너 정시성 전월 대비 1.7%p 증가³⁵⁾

» '23년 4월 컨테이너 정시성은 64.2%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는 둔화됨

- '23년 1월 이후 컨테이너 정시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전월 대비 개선 폭이 2월 7.8%p, 3월 2.3%p, 4월 1.7%p로 둔화되고 있음
- 선사별로 살펴보면 머스크와 MSC가 각각 70.3%, 68.0%로 가장 높은 정시성을 기록하였으며, 머스크는 선사 중 처음으로 70%대를 회복함
- 반면, 양밍, HMM, ONE, 하파로이드, ZIM, PIL은 전월 대비 정시성이 하락함

35) Sea-Intelligence(2023.05.29.), <https://www.sea-intelligence.com/press-room/203-schedule-continues-to-increase-in-march-2023>(2023.06.15 검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66.6	67.2	65.6	67.8	71.7	76.2	75.3	69.2	67.0	72.9	75.5	73.4
2019	73.4	73.6	74.3	76.6	80.2	83.5	82.7	78.7	77.4	79.1	80.0	76.3
2020	68.5	65.0	70.3	69.8	74.8	77.7	75.3	63.7	56.0	52.3	50.0	44.5
2021	34.7	34.7	40.3	39.1	38.7	39.5	35.5	33.5	34.0	34.3	33.2	31.7
2022	30.4	34.2	35.8	34.3	36.5	39.9	40.3	46.2	45.4	51.8	56.5	56.4
2023	52.5	60.2	62.5	64.2	-	-	-	-	-	-	-	-

자료 : Sea-Intelligence, <https://www.sea-intelligence.com/press-room/197-sharp-m-m-increase-in-schedule-reliability-in-february-2023>(2023.06.15 검색)

2) 양곡

① 5월 밀과 콩의 수입단가는 식용과 사료 부문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하락함³⁶⁾

» '23년 5월 식용 밀과 채유용 콩의 수입단가는 1%대 소폭 상승한 반면 사료용 밀과 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5%이상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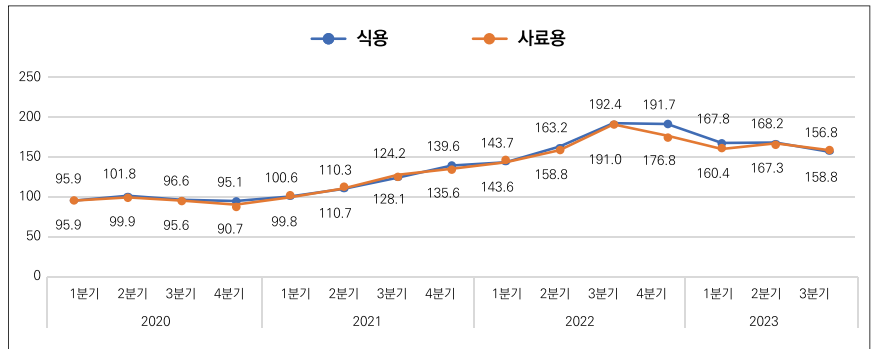
- 식용 밀과 채유용 콩의 5월 수입단가는 각각 447달러/톤, 653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1.9%, 1.0% 상승함, 반면 식용 옥수수의 4월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0.0% 하락한 348달러/톤을 기록하였음
- 5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354달러/톤)는 전년 대비 5.7% 상승하였으나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5.5% 하락한 336달러/톤을 기록함

» 3분기 식용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예상

- 3분기 식용곡물 수입단가 지수는 156.8로 전분기 대비 6.8% 하락, 전년 동분기 대비 18.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사료용 곡물의 3분기 수입단가지수도 158.8로 전분기 대비 5.0%, 전년 동분기 대비 16.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2023.5. 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234, (2023.6.20 검색)

국내 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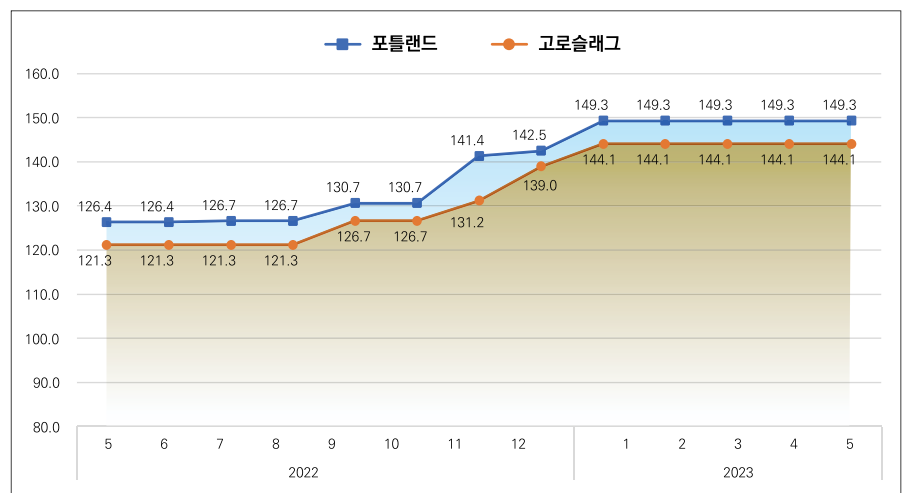
① 5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5개월째 보합세 유지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9.3p, 144.1p를 기록,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5개월 동안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26.4	126.4	126.4	126.7	126.7	130.7	130.7	141.4	142.5	149.3	149.3	149.3	149.3	0.0	18.1
고로슬래그	121.3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139.0	144.1	144.1	144.1	144.1	144.1	0.0	18.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6.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6.23. 검색))



② 시멘트 업계 가격 인상, 국토교통부 견제 장치 제도화 추진³⁷⁾

» 시멘트 업계가 7월 출하분부터 14% 가격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정부가 가격 인상 견제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 건설분야에서 필수적인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는 특정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밀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
-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재 관계부처 및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시멘트 가격인상 관련 협의회의가 열림
-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4개 관계부처와 시멘트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건설협회 등 업계 대표, 연구용역 책임자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석함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시멘트 가격 10% 상승 시 건설공사 전체 비용은 0.71~1.24%가 증가하는데, 이와 함께 철강재 가격도 재차 인상기조로 변화할 수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지난 2년에 이어 올해까지 자재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중소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내에 자재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힘

37) 대한경제(2023.06.12.),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ixno=202306102303331870584\(2023.06.13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ixno=202306102303331870584(2023.06.13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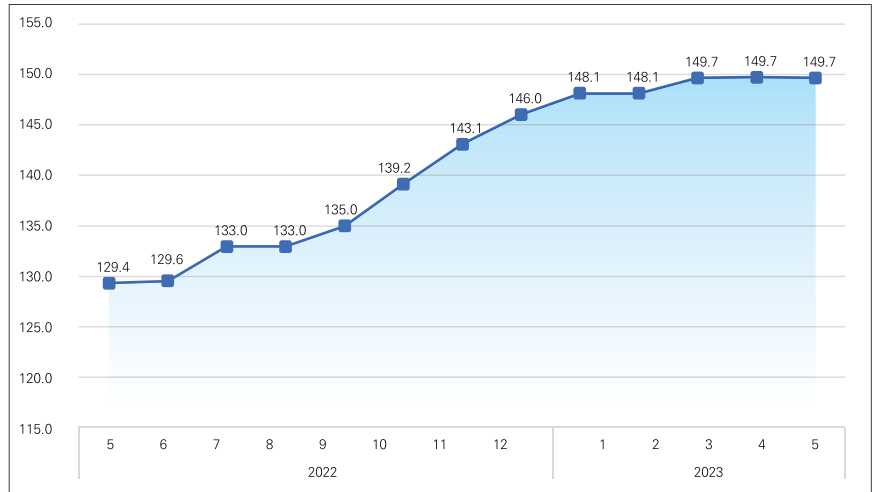


4) 모래

① 5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149.7p 기록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23년 2월 이후 3개월째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9.4	129.4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49.7	0.0	15.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Path=12\(2023.06.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Path=12(2023.06.23. 검색))

② 인도네시아, 바닷모래 수출 허용³⁸⁾

»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해수침전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바다에 퇴적된 모래는 정부 기반 시설 개발이나 민간 부문의 시설 건설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수출도 허용하기로 함

- 싱가포르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다 매립에 필요한 대규모 골재를 인도네시아 바닷모래 수입을 통해 해결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까지 연평균 5,300만 톤이 넘는 바닷모래를 싱가포르에 수출함
-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바닷모래 채취로 연안이 침식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부터 바닷모래 수출을 금지함
-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영해에는 매년 약 230억 m³의 퇴적물이 쌓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물동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이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준설사업으로 발생하는 퇴적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힘

38) 연합뉴스(2023.06.05.),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75500104\(2023.06.16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75500104(2023.06.16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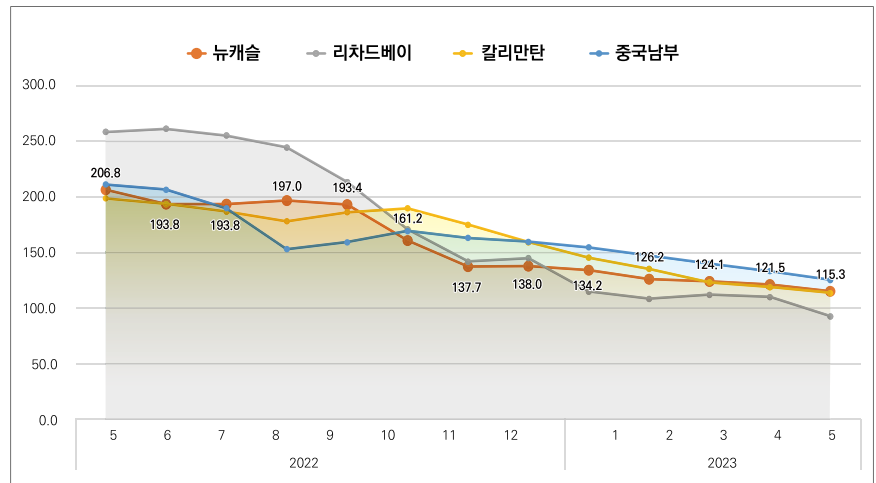
① '23년 5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³⁹⁾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5월 평균가는 115.32달러로 전월 대비 5.1% 하락세를 기록함

- 지역별 연료탄 가격은 호주 뉴캐슬산 5.1% 하락,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4.5% 하락하였으며, 남아공 리차드베이산도 15.7% 하락함(전월 대비 기준)
- 유연탄 가격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유럽지역 전력난 완화 및 중국의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석탄재고량 증가에 따른 연료탄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함

3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 (2023.06.22. 검색)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206.8	193.8	193.8	197.0	193.4	161.2	137.7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5.1	-44.2
리차드베이	259.1	262.1	256.0	245.1	213.9	171.0	142.2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15.7	-64.2
칼리만탄	199.2	194.0	187.0	178.5	186.5	190.1	175.3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4.5	-42.9
중국남부	211.6	206.9	190.1	153.2	159.6	169.8	163.4	159.9	155.0	147.7	140.1	133.4	125.4	-6.0	-40.7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삼척블루파워, 유연탄 육상운송 관련 갈등 심화⁴⁰⁾

- »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운송을 두고 환경·시민단체와 일부 동해 시민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음
- 삼척블루파워는 삼척 적노동에 위치해 있으며, 1,050MW급 2기 규모의 화력발전소로서, '23년 10월부터 상업가동 예정에 있음
- 당초 화력발전소 전면 해상에 석탄 하역부두를 만들어 유연탄을 전량 해상운송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체되면서 내년 1월까지 동해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여 발전소까지 육상운송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삼척 및 동해시민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소음 및 진동,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육상운송 계획 철회를 요구함
- 동해시는 삼척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운송을 제한할 행정적·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40) 뉴스핌(2023.06.0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08000766>
(2023.06.22. 검색)



6) 철광석

① '23년 5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한 104.6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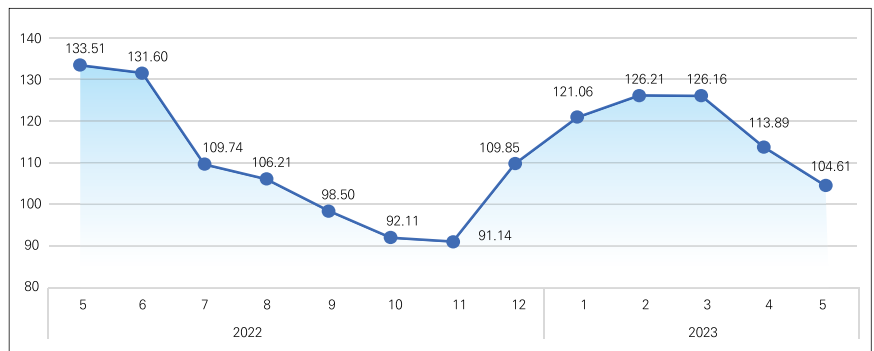
» '23년 5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4.6달러로 전월 대비 8.1%,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

- 중국 내 수요 부진에 따라 3월 이후 철광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통상 중국 건설 성수기인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올해 철광석 시장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됨⁴¹⁾

41) KOMIS(2023.05.03.), https://www.komis.or.kr/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3.06.15 검색)

(단위: 달러/톤)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33.5	131.6	109.7	106.2	98.5	92.1	91.1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8.1	-21.6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6.15. 검색)



② 카메룬, '23년 8월 철광산~항만 철로 개설 착수⁴²⁾

» 카메룬 정부는 Mbalam-Nabeba 철광산과 서해안의 크리비(Kribi)항을 잇는 철로 개설을 '23년 8월에 착수할 계획임

- 카메룬 정부는 연간 3,500만 톤의 철광석 운반이 가능한 총 500km의 철로 건설을 조건으로 광산을 허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지난 '21년 6월 Bestway Finance사 및 Aust Sino와 체결한 바 있음
- 해당 철로가 건설된다면 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석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해당 광산의 소유주인 호주업체 Sundance Resources사는 광선 허가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 위배를 주장하며,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해당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42) KOMIS(2023.06.09.), https://www.komis.or.kr/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3.06.15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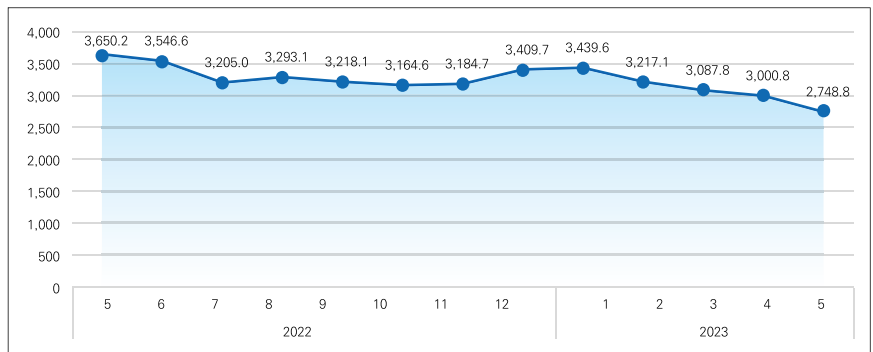
① 5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748.84로 전월 대비 8.4% 하락⁴³⁾

▶ '23년 5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8.4%, 전년 동월 대비 24.7% 하락한 2,748.84를 기록함

- 美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및 제조업 부문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자원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43)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 (2023.06.22. 검색)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650.2	3,546.6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8.4	-24.7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고려아연, 동박 제조 회사에 500억원 출자 예정⁴⁴⁾

» 고려아연은 동박 제조 자회사인 '케이잼(KZAM)'에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함

-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서, 전기차용 배터리(2차 전지) 음극재 시장의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이에 고려아연은 500억원을 출자하여 온산제련소 부근에 위치한 동박 공장 1차 증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 고려아연은 '27년까지 연간 6만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연산 3만톤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44) 데일리한국(2023.06.09.),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82> (2023.06.16. 검색)



8) 목재

① 2023년 1~4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71.0만 m로 전년동기 대비 22.7% 감소⁴⁵⁾

» 국내 건설 및 건축 경기침체로 인한 재고 부담 가중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했으며,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목재제품 가격의 하락 및 보험세가 진행됨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원목은 -22.7%, 제재목은 -18.9%, 성형목재는 -10.5%, 합판은 -15.8%인 반면 목재펠릿은 4.8% 증가함

품목(단위)	2023년 누적(1-4월)	2022년 누적(1-4월)	증감률(%)
원목(천m)	710	919	-22.7
제재목(천m)	493	608	-18.9
성형목재(톤)	27,387	30,587	-10.5
합판(천m)	416	494	-15.8
파티클보드(천m)	413	548	-24.6
섬유판(천m)	79	84	-6.0
우드펠릿(천 톤)	1,246	1,189	+4.8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5.2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G9gqAO3WkQE6KB2L8wd8AaZS5EMaBar7ZyLZKCq8xz9Jt9z4xzATNAi2YxRn0QbJ.frsas02_servlet_engine5?ntid=3183554&bbsId=BB5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6.1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G9gqAO3WkQE6KB2L8wd8AaZS5EMaBar7ZyLZKCq8xz9Jt9z4xzATNAi2YxRn0QbJ.frsas02_servlet_engine5?ntid=3183554&bbsId=BB5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6.16. 검색))

45)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5.2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G9gqAO3WkQE6KB2L8wd8AaZS5EMaBar7ZyLZKCq8xz9Jt9z4xzATNAi2YxRn0QbJ.frsas02_servlet_engine5?ntid=3183554&bbsId=BB5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6.1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G9gqAO3WkQE6KB2L8wd8AaZS5EMaBar7ZyLZKCq8xz9Jt9z4xzATNAi2YxRn0QbJ.frsas02_servlet_engine5?ntid=3183554&bbsId=BB5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6.16. 검색))

46)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3.06.12.), [https://nifos.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VK0XuLXeJt2u2a001R9N2yZrBzWm87ugZ0FVY5ELa1QnfuGPx6PMYBWaotamKugU.frsas02_servlet_engine5?ntid=3184312&bbsId=BB5MSTR_1036&pageIndex=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Id=kfri\(2023.06.16. 검색\)](https://nifos.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VK0XuLXeJt2u2a001R9N2yZrBzWm87ugZ0FVY5ELa1QnfuGPx6PMYBWaotamKugU.frsas02_servlet_engine5?ntid=3184312&bbsId=BB5MSTR_1036&pageIndex=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Id=kfri(2023.06.16. 검색))

②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⁴⁶⁾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월 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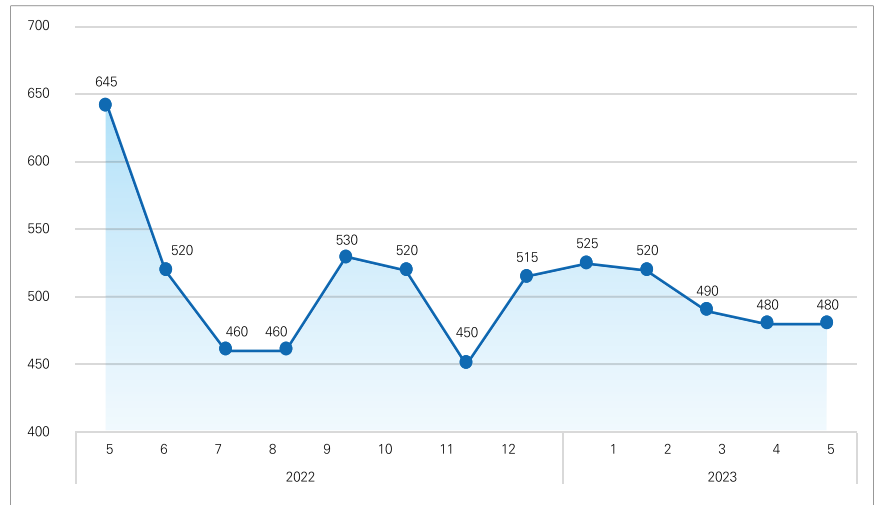
-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음
-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됨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됨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임

9) 고철

① 5월, 국내 고철 가격 보험세 기록

- » 국내 5월 생철 가격은 톤당 48만 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6% 하락한 수준임
- 작년 말부터 톤당 50만 원대로 증가했던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3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톤당 40만 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645	520	460	460	530	520	450	515	525	520	490	480	480	0.0	-2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② 미국 고철 수출, 4월 급감으로 감소세 전환⁴⁷⁾

- » 미국 고철 수출은 1분기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4월 급격히 감소하며 1~4월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함
- 1~3월 미국 고철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4월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함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됨
- 4월 미국의 국가별 고철 수출 물동량은 튀르키예향 물동량이 25.6% 감소한 33만 1천 톤, 멕시코 향이 33.7% 감소한 28만 톤 등을 기록함

47) 철강금속신문(2023.06.14.),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6/14/PS010614010101401A0001.pdf>(2023.06.20.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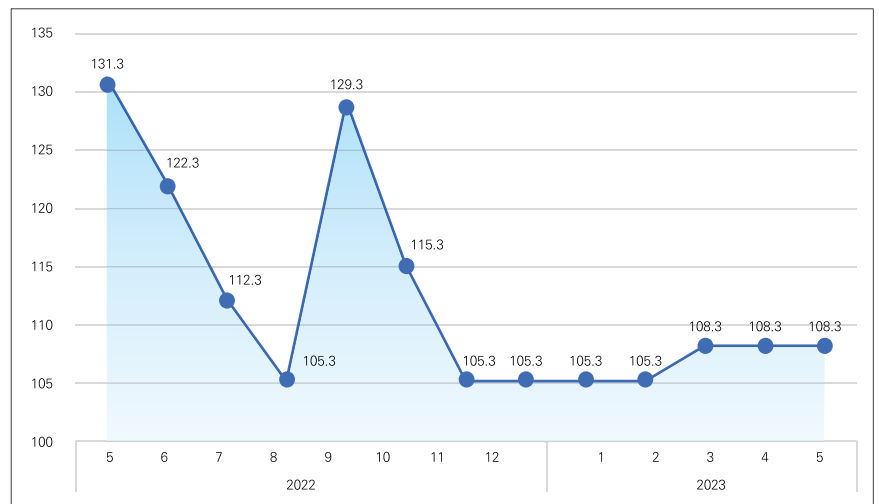
① 국내 열연코일 가격 보합세 기록

» 5월 열연코일(3mm×4mm×8mm) 가격은 전월과 같은 톤당 108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한 수준임

- 국내 수요 부진으로 작년 11월부터 7개월간 톤당 100만 원대의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31.3	122.3	112.3	105.3	129.3	115.3	105.3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0.0	-17.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②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⁴⁸⁾

» EU는 올해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다고 통지함

- EU는 '18년 7월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으로, 한국, 베트남,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으로 EU는 할당된 쿼터 이상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EU는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중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임

③ 세계 건설용 철강재 수요 약세 지속 전망⁴⁹⁾

» 국제철근생산수출협회(IROPAS)는 건설용 철강재의 수요가 세계 각 주요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며, 올해 3분기에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국제철근생산수출협회(IROPAS)는 통화 긴축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 경기 둔화,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른 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충격, 중국 이상기후로 인한 건설 및 부동산 침체, 아세안 금융 불안으로 주요국 건설 경기가 침체되며 건설용 철강재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함
- 튀르키예의 노후 건축물 개보수 사업과 지진 피해 복구 사업 등 정부 주도 공공건설 및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인해 당초 건설용 철강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EU의 경우 에너지 대란과 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라 민간 주택 및 공공 부문 투자가 감소한 상황이며, EU 철강업체들은 자국 내 수요 부진에 따라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출시장의 경쟁 과열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
- 미국 또한 금융 불안과 고금리로 새로운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의 경우 중부·남부 지역의 폭우, 북부 지역의 이상고온으로 건설 현장이 중단되면서 건설용 철강재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48) 철강금속신문(2023.06.19.),<http://pdf.snmnews.com/PDF/REAL/2023/06/19/PS010619010100101A0002.pdf>(2023.06.20. 검색)

49) 철강금속신문(2023.06.19.),<http://pdf.snmnews.com/PDF/REAL/2023/06/19/PS010619010100301B0002.pdf>(2023.06.20. 검색)



11) 자동차

① 5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5만 2,190대로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⁵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5월 내수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대기수요가 해소되며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함

-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반면, 수입차는 14.7% 감소함
- 친환경차 판매는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하이브리드는 30.9% 증가한 반면, 테슬라 차량의 판매 감소로 전기차는 전년동월 대비 6.2% 감소하며, 전체 친환경차는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한 47,275대를 기록함

» 수출은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국산 친환경차 인기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37.5% 증가한 248,755대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이 75.2%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49.2% 증가한 66,264대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26.6%를 차지함
- 완성차 수출액은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SUV의 수출이 증가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함
- 부품 수출액은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에서 감소하며 0.7%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임

» 생산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129대를 기록함

50)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06.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3.06.28.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3. 5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1~5월
내수	1,684,113	145,464	661,503	149,374	152,190	731,038	1.9	4.6	10.5
(국산차)	1,384,722	119,989	548,081	128,299	130,460	625,260	1.7	8.7	14.1
(수입차)	299,391	25,475	113,422	21,075	21,730	105,778	3.1	-14.7	-6.7
수출	2,300,333	180,884	901,260	247,399	248,755	1,182,442	-0.1	37.5	31.2
(완성차 수출액)	54,096	4,152	20,404	6,156	6,203	29,449	0.8	49.4	44.3
(부품 수출액)	23,318	1,955	9,904	1,906	1,941	9,646	1.8	-0.7	-2.6
생산	3,756,491	307,048	1,450,696	382,265	382,129	1,827,410	0.3	24.5	26.0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6.15.),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3&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3.06.16. 검색)

12) 잡화

51) ISM의 PMI 지수는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상태, 물가 등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해 수치화한 것으로,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2) Trading Economics (2023.6.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3.6.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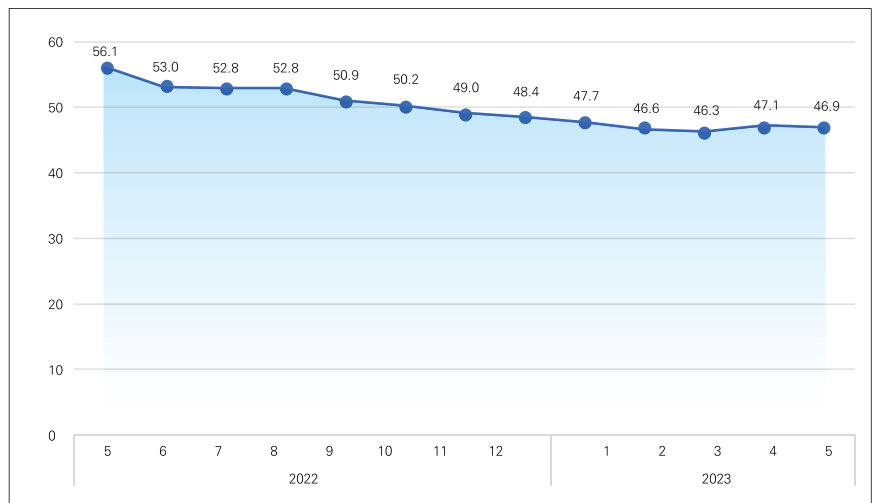
53) 측정지표로 신규수주, 수주잔량, 생산, 고용 및 물가 등이 있음

① '23년 5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⁵¹⁾ 46.9로 전월 대비(47.1) 소폭 하락함⁵²⁾

»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⁵³⁾

- 비즈니스 불확실성 증가로 5월 제조업 부문 신규수주(45.7→42.6)와 수주잔량(46.3→45.8)이 전월 대비 축소됨
- 반면 5월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확장으로 방향성이 전환되었으며(48.9→51.1), 고용도 증가하였음(50.2→51.4)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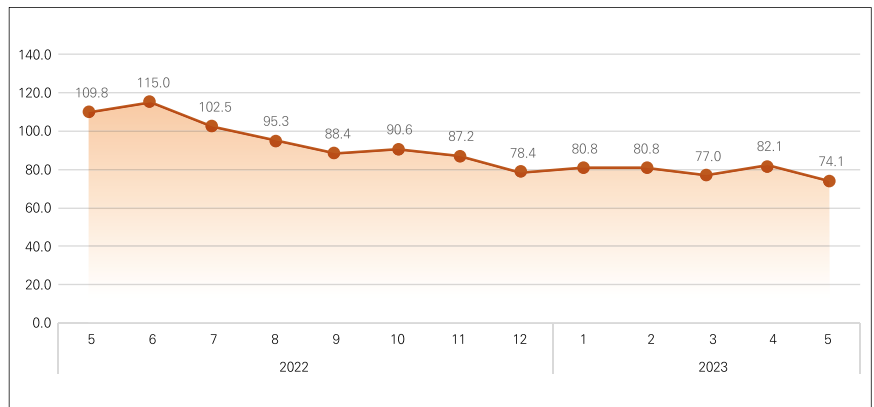
① 5월 국제유가, Dubai, Oman, Brent, WTI 모두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월별 유가는 '22년 6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23년에는 등락을 반복하고는 등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급등했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다 증감을 거듭하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와 중국의 리오프닝, 러시아 및 OPEC+의 추가 감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108.2	113.3	103.1	96.6	91.0	91.2	86.3	77.2	80.4	82.1	78.5	83.4	75.0	-10.2	-30.7
Brent	112.0	117.5	105.1	97.7	90.6	93.6	90.9	81.3	83.9	83.5	79.2	83.4	75.7	-9.2	-32.4
WTI	109.3	114.3	99.4	91.5	83.8	87.0	84.4	76.5	78.2	76.9	73.4	79.4	71.6	-9.8	-34.4
평균	109.8	115.0	102.5	95.3	88.4	90.6	87.2	78.4	80.8	80.8	77.0	82.1	74.1	-9.7	-32.5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6.26. 검색)



② 유럽, 러시아산 가스의 아프리카산 LNG 완전 대체 추진⁵⁴⁾

-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에 따르면,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 대체를 추진하면서 알제리 1분기 LNG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약 280만 톤을 기록함
- 알제리산 LNG 수출은 대형 LNG선 하역설비 구축이 예정된 Skikda항 확장공사 후, 더욱 증가할 전망임
- » 이탈리아 석유회사인 ENI는 유럽에 공급할 천연가스를 아프리카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음
- ENI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유럽에 LNG를 공급할 공고의 첫 LNG 프로젝트 건설공사를 올해 4월에 개시함

③ 미국, 전략비축유(SPR) 충유⁵⁵⁾

- »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6월 9일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충유를 위한 300만 배럴 원유 구매 계약을 체결함
- 바이든 행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높아진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SPR 1억8,000만 배럴을 방출한 바 있으며, 5월 15일 전략비축유 재구매 계획을 밝히며 \$67~72/B 이하 가격으로 SPR 재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SPR 구매 입찰에는 10개 회사가 참여하여 5개 회사가 낙찰되었으며, 8월 중에 텍사스 Big Hill 저장기지로 입고될 예정임
- DOE는 이번 입찰을 통해 '22년 평균 SPR 단가인 \$95/B보다 낮은 평균 \$73/B에 구입했으며, 9월 인수 예정인 SPR 약 310만 배럴 추가 구매를 위해 6월 9일 구매 입찰 계획을 발표함

5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6.0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6.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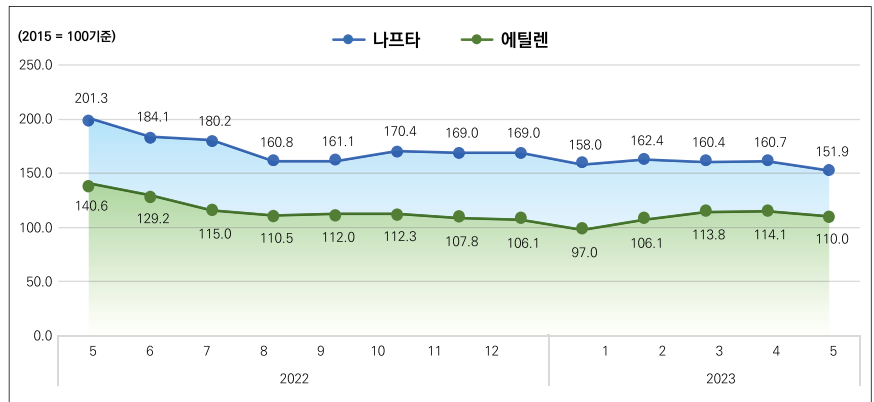
5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6.1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6.16. 검색)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5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및 에틸렌 전년 동월 대비 20%대 하락

- ▶ 유가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던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22년 3월과 4월에 최고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부터 나프타가 소폭 증가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에틸렌은 상승 추세를 보이다 5월 감소함
- 석유화학업계는 수급을 위해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대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항만물동량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1.3	184.1	180.2	160.8	161.1	170.4	169.0	169.0	158.0	162.4	160.4	160.7	151.9	-5.5	-24.6
에틸렌	140.6	129.2	115.0	110.5	112.0	112.3	107.8	106.1	97.0	106.1	113.8	114.1	110.0	-3.6	-21.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j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6.26. 검색)

② 율촌산업단지, 포스코 수산화리튬공장 착공⁵⁶⁾

- »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탄산리튬 원료를 소재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의 착공식을 개최함
- 포스코리튬솔루션에서 5,751억 원을 투자한 수산화리튬 공장은 2만 7,000평(77,394㎡) 부지에 들어서며, '25년까지 연간 전기차 6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수산화리튬 2만 5천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신규 고용인원은 210명임
- 이번 공장 건설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단계 투자의 일환이며, 아르헨티나 공장(상공장)에서 원료가 되는 탄산리튬을 생산한 후 이를 소재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장(하공장)임
- 공장 준공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망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부지에 내년까지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에서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공장이 추가 착공될 예정으로, 3조 1,800억 원의 투자와 8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정되어 이차전지 소재분야 밸류체인 완성이 기대됨

③ LG화학, 대산에 탄소나노튜브 4공장 착공으로 생산능력 2배 이상 증가 전망⁵⁷⁾

- » LG화학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배터리 소재, 반도체 공정용 소재로 각광받는 CNT(Carbon Nanotube, 탄소나노튜브) 4공장을 '25년 가동 목표로 착공함
- LG화학은 '17년 가동을 시작한 CNT 1공장(생산능력은 500톤)을 포함, 기존 CNT 생산능력은 1,700톤이었으며, 최근 여수에 증설한 생산능력 1,200톤 규모의 CNT 3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총 2,9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함
- '25년 4공장이 완공되면 LG화학의 CNT 생산능력은 현재의 두 배 이상인 총 6,100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 LG화학은 전지소재 중심으로 성장 중인 글로벌 CNT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CNT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증설을 검토할 계획
- CNT는 전기와 열전도율이 구리 및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소재임
- CNT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정용 트레이, 자동차 정전도장 외장재 등에 활용되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트레이에 CNT를 적용하면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기반으로 고온을 견디고 분진, 전자파, 정전기 등을 차단할 수 있음
- LG화학에서 생산된 CNT는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업체에 양극 도전재(Conductive Additive) 용도로 공급될 예정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LG화학의 CNT 공장은 자체 개발한 유동층 반응기로 생산라인 당 연간 최대 600톤까지 양산이 가능한데, 이는 단일라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

56) 코리아워킹게트(2023.06.14),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8364(2023.06.16. 검색)

57)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6.02.),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67(2023.06.16.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6. 30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